



실무중심의 강의와 국내외 물류산업시찰 등 다양하게 진행



장 지 현(1기 수료생) / 아세테크 물류기술연구소 연구원(chang@asetec.co.kr)

프로젝트와 한참 전쟁중이던 9월의 어느날 아침, 출근한 책상에는 반페이지의 광고가 잘라진채 올려져 있었다.

“제1기 물류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 모집!”

순간, 눈을 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교육과정 만남은 시작되었고, 누군가의 배려가 어떤이 에겐 빛과 소금이 되었던 것이다.

(사)한국물류협회와 명지대학교 주관으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15주간 제1기 물류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이 진행되었다. 국내 물류업계 및 관련 종사자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8시간씩 물류능력개발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이었다.

물류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물류전반의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국내 물류업체의 현장 견학과 국외(중국) 물류산업 시찰 연수과정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실제의 실무이론과 현장연수의 많은 시너지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을 자세히 정리해 본다면, 물류컨설팅 기법론, 물류센터 구축과 설계 및 운영기법, 수·배송시스템, 표준화 시스템, 물류정보 시스템 설계 및 구축, EDI 설계, TMS 적용기법, 포장시스템, RF-ID 구축, 물류혁신 기법, SCM 사례, 물류비 분석, KPI 기법, 국제물류 등으로, 각 Chapter마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관리자 및 저명인 교수·박사님등 총 스물세분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열띤 강의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함께 수강한 수료생들은 물류 현업에서 실무자들로 대표이사에서부터 이사, 팀장, 부장에서 대리에 이르기까지 총 28명으로 구성되었다.

국내 현장견학은 대한통운 신탄진 센터(허브터미널)와 LG화학 청주공장, GS리테일 중부물류센터에서 관리책임자의 진행으로 현황 및 운영소개와 현장실사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매번 물류현장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적정한 수준의 Infra와 정보System 그리고 운용 Process 이 삼박자와 더불어 관리자의 운용·개선 마인드가 잘 조화되어 운용 될 수록 물류서비스와 비용절감 효과는 앞당겨진다고 생각된다.

국외 물류산업 시찰 연수과정에서는 중국의 청도소재의 물류보세원구와 대청물류센터, 하이얼전자와 골드라인 현장과 청도맥주공장, 박물관, 제독관저, 관교, 소어산, 해군박물관등 청도문화체험이 이루어 졌다. 전만술 박사님과 물류협회 김인구 이사님의 진행으로 작게나마 세미나도 개최하며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2박3일의 일정으로 빠듯한 감도 있었지만, 중국의 넓고 광활한 대륙처럼 앞으로 우리도 힘차고 넓게 뻗어가자는 다짐을 하며 알차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교육과정의 마지막으로는 자료를 공유해가며, 지도담당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가며 그동안 팀별 과제에 대한 발표과 평가가 있었다. 사실상 매주 토요일마다 종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예상보다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때마다 강사님들과 열띤 토론해가며, 격려해가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빛과 소금...

이번 물류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의 목적은 물류전반의 이해와 더불어 컨설팅 기법을 습득하고, 컨설턴트가 아니라도 그입장이 되어 고찰하여 현 업무에 적용·개발하는 마인드를 키워주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책을 통하고 실무를 통한 지식과 경험이라도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배운 느낌과 경험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진 소중한고도 의미있는 시간이였다.

사실상 약 4개월간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나, 그동안 함께 해주신 강사님들과 수료생분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물류협회의 관계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 물류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은 1기생을 시작으로 2기생 3기생.. 더 많이 배출될 것이라 여겨지며, 공식홈페이지(www.logiscon.co.kr)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유대관계와 물류전반에 걸친의 지적호기심의 표출모임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필자 역시 열심히 활동하리라 다짐해 본다.

